

온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

순일 이동호

온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엔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참 이해
2. 방편

이 둘을 간단히 밝히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 봅시다.

참 이해란 실상을 알고 또한 실상의 드러남인 현상이 어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또한 현상이란 대립적 관계로 지어졌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선도 악도 초월한 자리요, 고통도 행복도 여윈 자리입니다. 참나에는 어떠한 대립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공부하는 학습의 장입니다. 세상 자체가 공부이긴 하되 늘 열려 있는 마음의 눈으로 주시할 때 그러합니다.

우선 방편으로 시작해서 참나가 되는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방편들을 통하여 일단 업식(業識)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가슴에 먼지가 다 털어지면 원래 있던 참나의 모습을 일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성품을 보는 것입니다(見性). 그러나 본래성품을 보긴 했으되 여전히 이 과 저 을 오락가락합니다. 이때부터 참나가 늘 되어 있게 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거의 늘 참나임에도 마지막 의문은 떨어지지 않는데, 이때 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참 이해가 없다면 방편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늘 미진한 듯이 느끼

.....

는 것이지요. 참나에 가까워지면 안 올래야 안올 수 없는 큰 경계들이 옵니다. 그 경계들을 이미 지날 수 있을 만큼 가슴은 열려 있습니다. 그 경계들이 스스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일단 참나에 가까이 섰다면 자면서도 스스로 정화해나갑니다. 이때는 꿈을 꾸어도 공부가 되는 꿈입니다. 방편은 다 놓여집니다. 방편 없이 이제 삼매 아닌 삼매를 하는데 삼매도 여러 종류입니다. 마지막의 자비삼매에 오면 이제 업식이 쌓이지 않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방편은 온전한 사람의 상태들을 쫓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미 늘 참나에게 되면 방편없이도 늘 그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편이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방편을 하라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방편을 줄 때는 그 방편의 참 원리가 무엇이며 참 이해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참원리를 설명하여 주면 듣는 이가 이미 마음속에서 이치에 순복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의심 없이 방편을 수용할 때 서로가 쉬이 공명하게 됩니다. 누군가 참 이치를 듣고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그 방편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방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원리가 필요하지만 화두만은 조금 예외입니다. 화두는 처음부터 스스로 의문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화두에 누군가 참 원리라 하면서 답을 준다면 이미 그것은 화두가 아닙니다. 이러한 방편의 목적은 업식 정화입니다. 일단 살아오면서 가슴에 쌓인 먼지들을 다 털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편들은 임시방편으로서 마치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처럼 일단 병을 낮게 하면(참나를 보면) 그 방편들은 놓여져야 합니다. 놓여졌을 때 이제 참나가 스스로 여러 경계를 보여줍니다. 온전히 참나가 될 때까지. 경계가 온다 함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에 가야 할 길은 더 있는 것입니다. 하나 이때부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참나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순일의 방편은 다음과 같은 여정입니다.

-
1. 참나를 알게 한다. 관념으로 자기라 여기고 덧칠한 색깔들이 나라고 우기고 있음을 알게 한다.
 2. 거짓나가 스스로 쓰러진다.
 3. 쌓여 온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진다.
 4. 늘 참나의 상태가 된다.
 5. 온전한 평화

참나를 알게 하는 방법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도대체 진짜 나는 어떤 것일까?

각자가 한번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지 쪽 써내려 가봅시다. 그곳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들이 쓰여 질 것입니다.

1. 나는 기업의 사장이다 (직업과 지위)
2. 나는 홍길동이다. 몇 살이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름 등)
3.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사는 자이다
4. 나는 누구의 아내이다
5. 나는 누구의 친구이다
6.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무엇 무엇이다
7.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다 (취향)
8. 나는 지구인이다
9. 나는 염세주의자이다 낙천주의자이다
10. 이 몸이 나이다
11. 이 생각이 나이다
12. 이 피가 나이다
13. 이 세포들이 나이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헌데 위에 것을 한번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 해봅시다.

-
1. 직업이 기업의 사장이 아니고 다른 직업이라면 나가 아닌가?
 2.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고 홍금동이며 나이가 틀리고 여성이 아니며 혹은 남성이 아니라면 나는 나가 아닌가?
 3.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나가 아닌가?
 10. 팔다리가 잘려서 몸통만 남으면 나가 아닌가?
 11. 생각들은 떠올랐다가는 사라지는 걸어잡을 수 없는 것인데 생각들이 사라지면 과연 나가 아닌가?
 12. 피를 수혈해서 사라지거나 혹은 몸이 성장하는 동안 피는 사라지고 새로운 피가 생기는 법인데 원래 있던 피가 사라지면 나가 아닌가?
 13. 세포란 몸이 성장하는 동안 수없이 죽고 새로이 생기는 법인데 그렇다면 그 죽은 세포들이 전부 나란 말인가. 그것이 나라면 세포가 죽을 때 나도 죽어야 하는 법

나는 무엇인가?

위의 문장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흔히 앞의 나와 뒤의 무엇을 동일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허나 위에서 보듯이 관찰하여 보면 나와 무엇이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어도 나이며 나는 세포가 아니어도 나입니다. 즉 앞의 나는 진짜로 나이며 뒤의 무엇을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고 여기는 무엇들은 사실 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이란 '나'가 아닌 '나'란 것에 입힌 옷과 같은 것입니다. 허나 위에서 보듯이 단순히 나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해도 그것을 나라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나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나'와 '무엇'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 참나 하나만 있음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다.
- 무엇 : 관계 비교(시시비비, 캐릭터, 옷, 표현)이다. 기업의 사장은 직원과의 관계 비교이며 아버지는 자식과의 관계이듯이 무엇이라 함은 이미 조건 있는 관계와 조건 있는 비교이다. 그리고 도구이며 쓰임이다.

.....

헌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엇과 동일시 한다면 이제 그는 별도의 참나로서 그러한 도구들을 쓰임으로 쓰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 스스로 도구를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그는 파란색이라고 우기게 되고 빨간색이 오면 싸우게 됩니다. 허나 누군가 스스로는 참나이며 그 모든 무엇을 단지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用)한다면 무엇이든 고마운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자가 없는 행위 혹은 참나(體)에 앉아서 용(用)을 하라 합니다. 실로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없는 체와 조건 있는 용이 같이 어울려서 놀이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리함으로 절대(참나)마저도 상대와의 관계에서 밝혀지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위의 나는 누구인가의 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는 무엇이다. (동일시 괴로움)
2. 나는 나이다, 빛이다, 진리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말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허나 아직도 이렇게 여기는 한 ‘와의 차별이 있음이요, 어둠과의 차별이요, 진리 아닌 것과의 차별이 있음이다.
3. 나는.....아!.....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이다. 누군가 “이게 뭐요?”하고 물으면 “공”, “저건 뭐요?”라고 물어도 “공”. 허나 이렇게 참나 하나로만은 어떤 표현도 없음이다. 현상에서 이리하면 아무 표현을 할 수가 없다.)
4. 나는 무엇을 쓴다 혹은 쓰는 자이다. (이것은 일변의 “나는 무엇이다”와 같은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1번은 나와 무엇을 동일시 함이요, 4번은 이제 내가 무엇을 도구로 씀이다. 동일시가 아닌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나라고 우긴 것들은 나가 아니다. 그것들은 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2. 그 표현들은 그러므로 거짓나(假我)였음에도 진짜 나로 착각하고 살았던

.....

것이다

3. 그 거짓나들은 알려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즉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4. 그러한 거짓 나가 아닌 “나”는 참나라 이름 할 수 있다
5. 그 참나는 알려질 수도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다.
6. 그럼으로 우리가 무엇이건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들 즉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막론하고 전부 거짓나이다.
7. 그럼으로 참나라 우리가 바로 나라고 우기는 저 모든 거짓 나가 없는 상태로만 스스로 존재할 뿐이다. 그 상태에서 참나의 성품을 체험할 수 있다.
8. 그럼으로 참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선 참나라를 찾아감이 아니다. 즉 거짓나만 사라지면 참나라의 상태이다.
9. 지금까지 나라고 우긴 거짓나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행동들이 대다수이며 이제 이것을 이해하였다면 그 행동들을 되살피 잘못됐던 것들을 잘 주시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주시하면 참회가 오며 그것으로서 그 모든 짐은 녹아 내린다.
10. 참나라가 투영된 것을 현상이라고 한다. 참나라가 표현된 것이 바로 예고이다.
11. 이 예고들이 녹아내리면 참나라의 성품을 본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라고 우겼던 참나라의 거울에 묻은 색깔들이 우수수 한번에 녹아 내린다.

그럼으로 방편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나라가 무엇인지를 참 이해하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 나라고 우겼던 것들이 거짓나임을 참 이해하여야 한다.
2. 그 거짓나가 살아오며 지었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헌데 보려 하면 잘 안보인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고파 하는 거짓나의 표현을 뒤집어서 육체가 필히 소멸하고 마는 것을 확고히 믿는 방편이 동

.....

원된다.

3. 그 방편으로 인해 거짓나의 소멸이 지금 벌어졌거나 혹은 조만간 벌어진다 했을 때 거짓나의 이해를 이미 한 사람은 지나온 잘못들을 그 자리서 보게 된다.
4. 혹은 이제 거짓나의 소멸이 얼마 안 남았음으로 인해 남은 인연들을 정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보게 된다.
5. 이러한 것들로 인해 거짓나가 행했던 죄업에 대한 참회가 벌어진다. 이러한 참회는 청정심의 비(雨)와 함께 모든 지나온 죄들을 소멸하는 것이다.
6. 이러한 소멸이 올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된다면 이제 모든 이에게 잘못됐던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의 참나가 인정을 한다. 그러하지 않을 때 아직도 질기디 질긴 에고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이다.
7. 개인의 에고가 녹아 내리면 참나와 참나의 표현인 이 현상에 대한 참 이해가 벌어진다.
8. 둘은 동전의 양면이며 체(體)와 용(用)은 고요와 움직임으로서 동시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때 용에서 용을 하지 않으며 체에 앉아 용을 하게 된다. 그러할 때의 에고란 이미 이기적이지 않은 쓰임을 위한 에고가 된다.

이 자리가 온전한 평화입니다. 